

## 팔레스타인 해방투쟁과의 국제연대에서 제기되는 전술에 대하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3년 10월 27일,  
[www.thecommunists.net](http://www.thecommunists.net)

1.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팔레스타인 저항투쟁 정파들의 영웅적 투쟁이 다시 한 번 국제연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의 전술은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마스가 이끄는 저항투쟁의 군사적 승리를 제창한다. 그러나 하마스에게 정치적 지지를 주어진 안 된다. 즉, 우리는 지도부의 강령이나 일체의 전술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이 저항투쟁의 군사적 승리를 내건다.

2.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깨부수고 강에서 바다까지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자는 관점과 결합한다. 그러한 국가는 모든 난민의 귀환권을 승인할 것이므로 팔레스타인인이 다수자일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국가는 유대인 소수자에게 완전한 문화적·종교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그러한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속적·민주적 성격을 가질 것이며, 중동 사회주의 연방의 일부로서 노동자·빈농 공화국이어야 할 것이다. ("*강에서 바다까지 해방된 붉은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3. 우리는 서안지구의 완전한 인티파다 (봉기) 재활성화를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민중의 공회 창설을 촉구한다. 전쟁의 진로에 대해, 가능한 휴전 방안에 대해, 인도적 원조를 조직하고 분배하는 데 대해, 가자지구 재건에 대해 심의·결정할 노동자·민중 공회 창설을 — 전쟁과 억압의 조건하에서 이것이 가능한 정도까지 — 촉구한다.

4. RCIT는 팔레스타인 저항투쟁과 (중동) 지역의 다른 투쟁들 — 부활한 시리아 혁명, 군사독재에 대한 이집트 민중 저항, 이란의 노동자·민중 항쟁 등 — 의 결합을 제창한다. 즉,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은 2011년 시작된 아랍 혁명의 완결적인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티파다를 중동 전체로 확산하라!*"). 그러한 혁명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모든 제국주의 열강 (미국, 러시아 등)을 중동에서 내쫓고 시온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지역의 지배계급들을 타도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중동 사회주의 연방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5. 가자 전쟁 현 정세에서 우리는 휴전 요구를 지지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을 멈출 것이라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의 중대한 승리를 뜻할 것이다. 하마스가 10월 7일 시온주의 국가에 대한 성공적인 타격을 펼쳤고, "하마스 박멸"이 이스라엘과 그 서방 지지자들의 공언된 목표였다는 점에서 현 시기 휴전은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6. 하마스에 대한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조직이라는 우리의 정치적 비판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하마

스를 “테러 단체”로 낙인 찍고 비난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서방 및 그 밖의 나라들에서 하마스에 대한 범죄화 및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한다. 우리는 하마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을 (1970년대 및 1980년대 PLO의 경우처럼) 요구한다.

7. 이스라엘이 지상 침공을 시작하면 전쟁이 확대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시리아·이라크·예멘의 친이란 세력, 또는 아예 이란까지 분쟁에 돌입하도록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개입이 이 어려운 시간에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을 돕고 동시에 이스라엘 제국주의와 미 제국주의를 모두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환영할 것이다. 그러한 충돌에서, RCIT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이들 세력의 군사적 승리를 제창할 것이다. 그 지도부들 (및 이란 물라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말이다.

8. 미국은 이 지역에 두 척의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역내 군사력 보강을 꾀하고 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동시에 (지난 몇 년 중국·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많은 영향력을 잃은) 중동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아직 분쟁에 어떤 개입도 시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에 6척의 전함을 파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지지도 (설사 그 지지가 미국으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환영해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실제적 지지를 환영할 것이다. (설사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그러나 미국 전함과 중국 전함의 직접적 충돌 시에는, 우리는 이중 패전주의 입장, 즉 양 제국주의 진영 어느 측도 지지하지 않은 양 진영 모두에 대한 패전주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9. RCIT는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국제적 지지를 촉구한다. 노동자·민중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적 보이콧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지지를 사보타지하라. 이스라엘 상품, 친이스라엘 정치·문화 행사에 반대하는 파업과 항의시위,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하자! 동시에, 우리는 진보 유대인 단체들에 의한 모든 친 팔레스타인 활동을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고무 장려한다.

10. 아랍·무슬림 나라들에서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모든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외교·정치·경제 관계의 전면적인 단절을 요구한다.

11. 우리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대의를 지지한다고 하는 나라들에게, 팔레스타인 인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인도적 원조뿐만 아니라 무기도 포함된다.

12.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시위와 함께 노동자·민중 보이콧을 제창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재정적·군사적 지지의 종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 지배계급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데는 반대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열강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우리가 일관되게 반대해왔듯이 말이다. 언제나, 이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제재는 2차 세계대전 전야 이

래로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엄격하게 반대해온 사안이다.

13. 마지막으로, 종전 후 중요한 요구가 있다. 이스라엘이 —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열강들도 — 가자 재건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RCIT 국제사무국*